

석사학위논문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 서울시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

2024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국제이주협력학과

국제이주협력전공

동 찬 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혜련

##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 서울시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
-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Divorce Trend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 Focused on 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

202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국제이주협력학과

국제이주협력전공

동찬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혜련

##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 서울시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
-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Divorce Trend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 Focused on 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

위 논문을 국제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이 주 협 력 학 과

국 제 이 주 협 력 전 공

동 찬 위

동찬위의 국제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오 정 은 (인)

심 사 위 원 백 성 준 (인)

심 사 위 원 김 혜 련 (인)

## 국 문 초 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 서울시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제 이 주 협 력 학 과  
국 제 이 주 협 력 전 공  
동 찬 위

세계화가 추진됨에 따라 유학, 취업, 결혼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성비 불균등, 출산을 저하,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중에서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성 배우자로 구성된 다원적 가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부갈등, 가정폭력, 경제적 갈등, 정서적 문제, 인신공격, 자유의 제한 등 다양한 요소들이 부부의 이혼을 초래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에서 이혼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결혼생활 문제 발생단계에서 가족 해체 예방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개인적 요인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연령·직업 등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종교적 신념의 차이,

의사소통 능력이 구성하였다. 가족관계 요인에는 가정폭력,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자녀의 양육, 부모의 봉양이 있다. 사회관계 요인에는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험이 있으며, 환경적 요인은 체류자격 연장 및 국적 취득, 한국법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이용 경험, 직장 내 문제가 포함된다. 이렇듯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제시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위기 해소와 다문화가족해제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혼인신고 단계까지 정책 홍보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혼인신고서를 발급받는 즉시 지원정책 내용을 간략히 안내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회원가입을 돕는다. 센터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책 홍보 내용을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수 있다. 홍보 내용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선택할 수 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중앙 산하 정책 시행기관의 자금과 인력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해 시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지원 자금의 부족이다. 이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욕구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충족시키고자 하는 문제는 집행과정에서 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셋째, 부부관계를 돈독히 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족지식을 학습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 간 교류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부부와 한국 가족 부부간의 문화 학습과 이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폭력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 활동도 필요하다. 교육의 대상을 부부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시부모나 형제자매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

넷째, 체류자격 연장 및 국적취득 요건 완화해야 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국적을 신청할 때 복잡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심사 기간도 길지만 성공할 확률도 낮다. 중국 한족 여성 이민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혼인 관계를 마친 뒤 자녀 양육권을 얻지 못하면 한국에서

생활하기 어렵게 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자격 연장 및 국적취득 요건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울시 거주 이혼위기에 처한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그들의 이혼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서울시 거주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기에 전국 결혼이민자 이혼위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향후 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 영향요인을 더욱 다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 연령, 직업, 가계소득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차원에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혼위기와 관련된 영향 요인뿐 아니라, 결혼 초기 사회 적응 단계, 이혼 후 생활 적응 과정도 해당 연구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주요어】** 여성결혼이민자, 중국 한족 여성, 이혼위기, 다문화가족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 목적 및 논문 구성 .....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	6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	6
제 2 절 결혼이민자 이혼위기 관련 이론적 검토 .....	9
1) 이혼위기의 개념 .....	9
2) 이혼위기의 영향요인 .....	10
제 3 절 연구방법 및 분석틀 .....	13
1) 심층면접 .....	13
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	14
3) 자료수집 및 분석 .....	19
4) 연구 분석틀 .....	20
제 3 장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실태 및 정부 지원 정책 .....	21
제 1 절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유입 및 정착 .....	21
1)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유입 .....	21
2) 결혼이민자의 혼인 현황 .....	23
제 2 절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와 이혼 추이 .....	26
1)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실태 .....	26
2)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추이 .....	29
제 3 절 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및 문제점 .....	32
1) 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현황 .....	32
2)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 .....	42

<b>제 4 장 여성결혼이민자 이혼위기의 영향 요인</b> .....	<b>44</b>
제 1 절 개인적 요인 .....	44
1) 경제적 어려움 .....	44
2) 연령, 직업 등의 차이 .....	46
3) 생활방식의 차이 .....	47
4) 종교적 신념의 차이 .....	50
5) 의사소통 능력 .....	50
제 2 절 가족관계 요인 .....	52
1) 가정폭력 .....	52
2)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	55
3) 자녀 양육 .....	57
4) 부모의 봉양 .....	59
제 3 절 사회관계 요인 .....	61
1) 문화적 차이 .....	61
2)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험 .....	61
제 4 절 환경적 요인 .....	63
1) 체류자격 연장 및 국적 취득 .....	63
2) 한국법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이용 경험 .....	63
3) 직장 내 갈등 .....	64
<b>제 5 장 결론 및 제언</b> .....	<b>66</b>
<b>참 고 문 헌</b> .....	<b>71</b>
<b>ABSTRACT</b> .....	<b>75</b>

## 표 목 차

[표 2-1] 이혼의 영향요인 .....	11
[표 2-2]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6
[표 2-3]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 .....	18
[표 2-4] 자료 수집 과정 .....	19
[표 3-1] 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 2012-2022 .....	24
[표 3-2] 외국인과의 이혼, 2012-2022 .....	27
[표 3-3] 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 2012-2022 .....	28
[표 3-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 .....	34
[표 3-5]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다문화가족 가구상황별 지원) .....	36
[표 3-6]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지원) .....	37
[표 3-7]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	38
[표 3-8]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40
[표 3-9] 다누리 콜센터의 지원 서비스 .....	41

## 그림 목 차

[그림2-1] 연구 분석틀 .....	20
[그림3-1]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	22
[그림3-2] 외국인과의 혼인, 2012-2022 .....	23
[그림3-3] 지역별 결혼이민자 등록외국인 분포 현황 .....	25
[그림3-4] 전국과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추이, 2012-2022 .....	30
[그림3-5] 전국대비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비중 추이, 2012-2022 .....	31

# 제 1 장 서론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세계화가 추진됨에 따라 유학, 취업, 결혼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국가 간의 인구교류와 이동으로 한국도 단일민족사회에서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성비 불균등, 출산율 저하,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으로 구성된 가정, 둘째는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로 구성된 가정이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으로 구성된 가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한국문화에 대한 동경, 경제 상황 개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등 다양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 거주 외국인 수는 235만 4,083명으로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한다. 2013년 157만 6,034명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늘어난 숫자가 제주 68만 32명의 전체 인구보다 많아졌다. 특히 국제결혼의 증가는 여성결혼이민자수의 확대로 2022년 결혼을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총 1만 6천 666명이며, 이중 외국인 여성은 1만 2천 7명, 외국인 남성은 4천 659명이다. 결혼이민자는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10년 만에 18.6% 증가했다.<sup>1)</sup>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지역으로 전체 규모의 29.1%를 차지한다. 다양한 문화의 유입은 한국 사회에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의 변화와 사회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형성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발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인구 구성의 변화도 필요로 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한 이민자 증가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결혼의 경우 상당한 부분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속성결혼이다. 상업적 목적이 우선으로 작용하게 될 경우, 일부 한국 남성들은 매매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sup>2)</sup> 부부갈등, 가정폭

1)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2), 「2022년 혼인·이혼 통계」, p.14

2) 송지프, (2009),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p.10.

력, 경제적 갈등, 정서적 문제, 인신공격, 자유의 제한 등 다양한 요소들이 부부의 이혼을 초래하여 다문화가족의 해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구성비는 6.2%로 전년보다 0.1%p 증가했다. 외국인과의 이혼 중 외국인 여성과의 이혼 비중은 68.2%, 외국인 남성과의 이혼 비중은 31.8%였다. 한국 남성과 이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38.1%), 베트남(26.3%), 태국(7.9%) 순이었다. 이 중 중국 여성의 이혼 비율이 가장 높다.<sup>3)</sup>

다문화가족이 해체되어 한부모 가정이 된 외국인 여성들은 일반적인 한국 이혼 여성들보다 이혼 후 적응과정에서 친지들의 몰이해와 자녀 양육 문제로 인해 심리적·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국제결혼 해체는 남녀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혼 가정의 자녀는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공포와 불안감, 고독감에 젖어 일상생활에서 무력증 및 갈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년의 경우 아주 여성적이면서 공격성이 강한 양 측면을 갖게 되고, 소녀의 경우 일반 가정의 소녀보다 성에 대해 더 허용적이어서 성관계, 동거, 사춘기 때의 빠른 이성 교제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일반 가정 출신의 자녀들보다 결혼 후 더 많이 이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sup>4)</sup>

중국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결혼 및 이혼은 전체 외국 여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중국 한족 여성은 중국 조선족 여성에 비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성장환경과 한국의 생활 방식 간 차이가 크다. 다시 말해, 중국 한족 여성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경험한다는 것이다. 언어 소통의 어려움, 짧은 거주기간, 남편과 큰 연령차, 가정폭력, 남편의 낮은 사회적 지위,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 제한된 경제활동 기회,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대인관계의 어려움, 종교 및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 요소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듯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에 관해 연구가 중요함으로 불구하고

3) 법무부 이민정보과, (2022), 법무부의 「2022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56.

4) 성정현, 여지영, 우국희, 최승희. (2009). 『가족복지학』. 서울: 양서원.

해당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조선족 여성보다 한국 사회 정착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중국 한족 여성결혼 이민자의 이혼 문제와 관련된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그들의 이혼 실태 및 이혼위기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이 시급한 상황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혼인 위기는 여러 단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혼식 준비 단계부터 결혼 초기 적응 단계, 자녀 양육 단계까지 결혼 생활의 단계별 스트레스와 부부 자체의 나이, 성격 차이는 가족 해체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혼인 위기의 영향을 여러모로 분석하여 조기에 예방조치를 취해야 혼인 위기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학술적으로 다문화가족 해체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다음으로 결혼생활에서 고통에 시달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규모를 감소시킴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사회의 조화로운 다문화가족 형성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 제 2 절 연구 목적 및 논문 구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에서 이혼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결혼생활 문제 발생단계에서 가족 해체 예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혼인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이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자료를 활용해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현황 및 이혼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의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가족관계 요인, 사회관계 요인, 환경요인으로 구분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셋째, 이혼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반으로 국제결혼을 유지하고 혼인관계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 연구는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를 연구하게 된 배경과 이혼위기 영향요인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연구 필요성을 기술하고,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결혼이민자 이혼 관련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필요성과 독창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혼위기의 개념과 영향요인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여성결혼이민자 이혼위기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면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방법 부분에서는 심층면접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료수집 과정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였다.

제3장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유입 배경 및 현황,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추이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정착 및 이혼 실태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제3절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4장은 서울 거주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를 연구대상으로 진행한 심

층면접을 기반으로 이혼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가족관계 요인, 사회관계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은 결론 부분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여성결혼이민자의 건전한 결혼생활 유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2000년대 중반 이후 전국적으로 이혼이 늘면서 외국인과 한국인의 결혼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해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해체와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가족의 이혼 원인을 다각화하는 연구가 진행됐다. 김두섭·이명진(2007)은 국제결혼 부부 중에서 이혼한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고, 이들 부부의 연령과 교육 같은 인구사회학적 차이가 결혼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부부간 교육문화 차이와 나이 차이도 이혼 결정 단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up>5)</sup>

설동훈·이계승(2011)은 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이혼 의향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족 자원이론에 근거하여 설명변수들을 탐색하여, 연구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의 생활 방식 차이와 성격 차이가 부부갈등의 첫 번째 요인으로 나타났다.<sup>6)</sup>

박재규(2011)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 중에서 경기도 자료 일부와 한국 남성과 이혼한 여성이민자 심층 면접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령대별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국제결혼 관계에서 결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0대 이하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배우자의 정신장애나 남편의 외도, 가족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5) 김두섭, 이명진. (2007).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 안정성". 한국인구학, 30(3), pp.33-56.

6) 설동훈, 이계승. (2011).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이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지역사회학, 13(1), pp.117-147.

상대적으로 많았다. 30~40대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남편의 학대와 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50대 이상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무능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성격 차이, 결혼 충성도, 부부의 나이, 경제적 문제 등이 다문화가족 해체의 원인이 있다.<sup>7)</sup>

정선희(2014)의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후 자녀와 함께 홀로 살아가는 이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하여 이들의 생활 실태를 조명하였다. 사례를 통하여 일부 이혼 이주여성의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을 비롯한 참을 수 없는 가정 내 문제로 인한 이혼이지만 초기 사회적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언어 및 직무 기능 습득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후 생활을 연구하고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문제를 분석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해경(2015)의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후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후 삶을 7단계로 나누어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이혼 충격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였다.<sup>9)</sup>

김희주(2018)는 배제의 개념을 활용하여 한부모 여성과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배제의 원인과 과정을 연구하고, 한부모 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적 특징, 경제, 사회복지, 교육 및 사회적 관계의 다양한 맥락에서 겪는 사회적 배제와 어려움을 이해하며, 지원 정책과 실천적 의의를 제공한다.<sup>10)</sup>

쯔영티퇴(2020)의 연구는 더 목적성이 있는 이혼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실태를 비추어 보았다. 연구 결과는 베트남 출신 이혼한 여성결혼이민자 특유의 사회적 속성에 따라 베트남 여성에게 더욱 부합하는 이혼 후 정책적 도움과 사회적 지원의 방안을 제시하고

---

7) 박재규. (2011).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가족해체 원인 및 특성 분석: 경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3), pp.104-139.

8) 정선희. (201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 후 삶의 변화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p.1.

9) 이해경. (2015).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7, pp.29-54.

10) 김희주. (2018). "한부모 결혼이민자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가족과 문화, 30(2), pp.129-170.

있다.<sup>11)</sup>

김복태·최천근(2020)의 연구는 빈곤 여성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부모 여성의 결혼이민 빈곤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요인, 사회적 지원 요인, 정책적 지원 요인, 개인 요인으로 설정했다. 또 국적·연령별 한부모 여성 결혼이민자의 빈곤 상태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별로 차별화된 빈곤퇴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sup>12)</sup>

조세은·김혜미(2022)의 연구는 이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경력을 검토하고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여성결혼이민자 이혼 후 생활의 안정을 찾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혼한 후 평온한 삶을 찾는 방법을 검토했다. 그 방안으로 비자 정책 개선, 이혼 후 지원제도 마련, 이혼한 여성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제안했다.<sup>13)</sup>

요건대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과 관련된 연구는 가족 내 문제와 사회적 문제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이혼 과정과 이혼 후 여성의 생활 변화 및 한부모 가정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국가별 여성결혼이민자는 특유의 사회적 속성을 가진 경우가 많아 기존 자료 분석에 한계가 있다. 현재 중국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이혼하는 것은 전체 외국인 여성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한족 여성은 중국 조선족 여성보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성장환경과 한국 생활 방식에 있어서 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한족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더 큰 문화적 적응 압박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 중 이혼위기에 처한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가족 이혼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결혼생활 문제 발생 단계에서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1) 쩡영티타(TRUONG THI THOA). (202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 후 삶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p.1.

12) 김복태, 최천근. (2020). "한부모 여성결혼이민자의 빈곤 실태 및 결정요인". 현대사회와 행정, 30 (3), pp.85-107.

13) 조세은, 김혜미. (2022).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 후 한국 생활에 대한 경험연구". 한국이민정책학보, 5(1), pp.85-107.

## 제 2 절 결혼이민자 이혼위기 관련 이론적 검토

### 1) 이혼위기의 개념

이혼위기의 개념 중 위기의 한자적 의미는 위험한 일이지만 기회가 된다는 뜻이다.<sup>14)</sup> 영어로 해석하면 위기(crisis)는 "어렵거나 결정적인 시기,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전환점"이라고 정의된다. 두 가지 동·서양의 개념 정의를 통합해보면, 이혼위기의 개념은 결혼한 부부들이 그들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위험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일정한 불균형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손과 교정, 치유가 가능한 불안과 갈등으로 찬 선택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이혼 의도는 이혼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 Brown은 이혼의 의사결정과 재구조화라는 2단계를 가진다고 가정하였으며, 한 배우자가 이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즉 이혼의도를 지닐 때, 이혼 의사결정 과정이 시작된다고 보았다.<sup>16)</sup> 광배희(2001)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 이혼을 고려(90.9%)하거나 별거 중(80.0%)인 여성의 이혼 고려 여부의 비율은 결혼 중인 여성(40.8%)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이혼을 고려하거나 의도하는 것이 이혼 과정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7)</sup> 이처럼 이혼의도는 이혼, 별거, 이혼 등 일련의 행동에서 이혼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에 대해 국제결혼관계에 있는 외국인 여성이 이혼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정의한다. 이혼의도는 이혼에 관한 생각으로부터 결혼 관계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즉 이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관한 생각까지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혼의도는 이혼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실제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는 생각과 감정 등의 심리상태를 말한다.

---

14) 진위렌. (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이혼위기에 관한 연구." 朝鮮大學校 국내박사학위논문, pp.43-44.

15) 박순희. (1974). "이혼위기개입을 위한 불진현상연구-가정법률상담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7-38.

16) 주혜주. (2005). "이혼 여성의 이혼 결정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0-14.

17) 광배희. (2001).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p.1.

## 2) 이혼위기의 영향요인

이혼의 원인은 부부의 상호작용 중에 발생하므로 남, 여를 구분해서 각각 따로 독립적인 성격으로 생각할 수 없고, 특히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도 많은 관련 연구에서 상호작용에서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는 어려웠으므로 개인들이 자신이나 배우자에 대해 느끼는 반응, 행동, 느낌에서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4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sup>18)</sup> 또한 남성과 여성이 따라 언급되는 이혼 사유가 다르므로 4가지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주로 주장하는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개하였다. '개인 영역'으로 배우자의 행동, 자유를 원함, 성격이나 가치관의 변화, 감정적인 문제 등을 주장하였고, '부부관계상 영역'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생활방식의 차이, 성적인 문제나 성적 부조화, 신체적 학대나 폭력 등을 주장하였다. '사회관계망 영역'으로 부정행위, 결혼생활에 제3자 개입을 주장하였고, '환경 영역'으로 외적인 세력, 재정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혼의 영향요인을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sup>19)</sup>

---

18) 진위렌(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이혼위기에 관한 연구." 朝鮮大學校 國內 박사학위논문: 45-46

19) Ponzetti, J. J. Jr., Zvonkovic, A. M., Cate, R. M. & Huston, T. L. Author. (1992). Reasons for Divorce: A Comparison Between Former Partner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7(3/4): 186-187.

[표 2-1] 이혼의 영향요인

분류	이혼의 영향요인
개인 영역 (individual/perso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의 행동(spouse's behavior)</li> <li>• 자유를 원함(spouse wants freedom)</li> <li>• 성격이나 가치관의 변화(changes in personality or values)</li> <li>• 감정적인 문제(emotional problems)</li> <li>•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못함(basic unhappiness)</li> </ul>
부부관계상 영역 (dyadic/relatio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통의 어려움(communication difficulties)</li> <li>• 생활방식의 차이(differences in lifestyles)</li> <li>• 성적인 문제나 성적 부조화(sexual problems or incompatibility)</li> <li>• 신체적 학대나 폭력(physical abuse or violence)</li> <li>• 성 역할에 대한 갈등(conflict over gender role)</li> <li>• 사랑의 결핍(lack of love)</li> <li>• 부조화(incompatibility)</li> <li>• 권위적/통제적임(control)</li> </ul>
사회관계망 영역 (social net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행위(infidelity)</li> <li>• 결혼생활에 제3자 개입(third party involvement in marital concerns)</li> </ul>
환경 영역 (circumstance/situatio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적인 세력(external forces)</li> <li>• 재정적인 문제(financial problems)</li> <li>• 직업적인 문제(work or career problems)</li> </ul>

출처 : Reasons for Divorce: A Comparison Between Former Partners, pp. 186-187.

주미대(1982)는 이혼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사상적 요인, 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종교의 영향 등을 소개하였다. ‘사상적 요인’으로 종전의 이혼관, 가족관, 도덕관의 변화, 이혼에 대한 자유 사상의 변화 등을 주장하였고, ‘문화적 요인’으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로 인한 이혼관의 변천과 여성의 해방, 권리의 인식과 같은 문화발달의 현상을 주장하였고, ‘경제적 요인’으로 경제적 빈곤, 경제적 불황, 여성의 경제적 독립, 이혼 후의 생활보호 제도 등을 이혼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주장하였고, ‘사회적 요인’에는 산업 구조의 변화, 이동수단의 발달로 인한 지역 내 씨족 관계의 약화 등을 포함했으며, ‘종교적 요인’으로, 이혼에 대한 종교관의 태도가 변화함으로써 이혼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sup>20)</sup>

본 연구에서는 이혼위기의 영향 요인 관련 이론을 기반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가족관계 요인, 사회관계 요인, 환경적 요인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개인적 요인을 세분화하면 경제적 어려움, 연령·직업 등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종교적 신념의 차이, 의사소통 능력이 포함된다. 가족관계 요인에는 가정폭력,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자녀의 양육, 부모의 봉양이 있다. 사회관계 요인에는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험이 있으며, 환경적 요인은 체류자격 연장 및 국적 취득, 한국법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이용 경험, 직장 내 문제가 포함된다.

---

20) 주미대. (1981). "裁判上 離婚原因에 關한 研究."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1.

### 제 3 절 연구방법 및 분석틀

#### 1) 심층면접

본 연구는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 생활에서 겪는 이혼위기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 영향요인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고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이혼 동기, 국제결혼과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점과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진솔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심층면접의 방식을 채택하여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종결론을 도출하였다.

Maykut, P.와 Morehouse, R.(1994)는 질적 연구 방법은 귀납적인 방향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경향성이 강한데 이는 분석될 내용들이 연구자에 의해 미리 결정되지 않는 특징을 의미하고,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결과의 보고에서 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높이려는 의도를 갖는데 이러한 의도의 충족을 위해 사례접근형태의 접근을 하는 경향성이 많다.<sup>21)</sup> Jennifer Mason(1994)은 질적 연구방법이란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 이해되고 경험되거나 생성되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하였다.<sup>22)</sup> Guba와 Lincoln(1981)은 질적 연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sup>23)</sup> 질적 연구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현상 자체나 그 원인을 ‘수량화’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내면의 의미를 발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질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대화 속에서 과거와 현재, 그 상황들에 관한 생각과 해석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sup>24)</sup>

21) Maykut, P., and Morehouse, R. (1994). *Beginning Qualitative Research*. Palmer Press.

22) Jennifer M. *Qualitative Reseaching*. (1994), "Beginning Qualitative Research". Palmer Press(김두섭 역, 1999), 서울: 나남출판

23) Guba, E. G. (1981). "Criteria for assessing the trustworthiness of naturalistic inquiries".

본 연구의 심층면접 내용은 먼저 연구참가자의 개인적 배경특성을 파악하는데, 이 과정에는 인적사항, 결혼동기, 결혼시기, 초혼 여부, 자녀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중국 한족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 발생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생활과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정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알아본다. 이상으로 심층면접의 질문내용을 구성하였다.

## 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 가)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이다. 이혼위기에 처했거나 겪었던 여성결혼이민자 10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국내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이혼위기에 처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이다.

선정된 참여자는 연구의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참가자의 자질이 검증되면 제시한 정보와 자료는 신뢰성이 있다. 참가자가 제공한 정보와 자료는 연구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참가자의 선택이 연구 타당성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25)</sup> 따라서 심층 면접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2]과 같다.

참여자 A는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결혼 3년 만에 현재 27살이다. 남편이 중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평소 집에서도 중국어로 의사소통한다. 남편의 중국어 실력이 좋아 평소 집에서도 중국어로 의사소통한다. 현재 일은 미용실에서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중국어 상담을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7년을 살았지만, 평소에는 중국 친구들과 더 많이 연락한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모두 중국에 있고, 현재 직장에서도 승진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살 계획이다.

참여자 B는 남편과 연애 후 3개월 만에 임신 사실을 알고 급하게 결혼하였다. 현재 딸은 6살이고 아들은 2살이다. 아이를 낳고 나서 전업주부가 되었

24) 양소남. (2011).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전략",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1), pp.103-126; 홍용희 역. (2000). 질적사례연구(Robert E. Stake 저), 창지사.

25) 윤택림. (2013).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pp.80-81.

다. 아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남편의 직장 변동으로 이사를 한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다.

참여자 C는 대학 연애를 통해 결혼했다. 이제 31살인데 5살 딸이 있다. 직업은 백화점 직원이며 한국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하지만 아이의 교육 문제로 시어머니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남편의 태도도 결혼 전과 많이 달라졌다.

참여자 D는 남편과 중국에서 사내연애를 통해 결혼했다. 결혼 후 남편과 한국에 와서 살고, 현재 36세에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최종 학력은 대학원 석사 졸업으로 참가자 중 최고 학력이다. 동시에 남편과 10살 차이로 가장 나이 차가 많은 참가자이기도 하다.

참여자 E는 남편과 대학 시절에 만났다. 연애 1년 만에 결혼하고 현재 결혼 6년 차이이다. 아들은 5살이고 딸은 3살인 두 아이가 있다. 결혼 후 공식적인 직업은 없고, 가끔 아르바이트하면서 가정에 보태고 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참여자 F는 중국에서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현재 32살에 남편과 결혼한 지 5년이 되었고, 4살 아들이 있다. 아들이 2살 때 남편과 한국에 와서 살았다.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하면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유일한 여성이다.

참여자 G는 친구의 소개로 8살 연상의 남편을 만났다. 남편과 만난 지 2년 만인 2022년 결혼하였다. 지금은 직업도 없고, 아이도 없다.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결혼 기간이 가장 짧다.

참여자 H는 중국의 한 비즈니스 활동에서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이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연애를 시작했다. 사귄 지 1년 만에 남편은 전처와 이혼했고, 전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이 키운다. 남편과 결혼하고 한국에 온 후에야 사귀기 전에 이혼했다는 남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국어를 거의 못 하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일본에 가서 석사 학위를 받을 계획이 있다.

참여자 I는 대학 연애를 거쳐 남편과 결혼했다.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창업하여 아이가 없다. 결혼 후 줄곧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한국의 가족 문

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참여자 J는 한국 식당에서 일하던 중 남편을 만났다. 남편이 식당 주인이라서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으며 큰딸은 32세로 한국에서 살고, 둘째 딸은 29세로 중국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남편은 초혼이고 결혼 후 아이가 없다.

[표 2-2]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번	연구 참여자	연령	학력	결혼	초혼 여부	자녀	나이 차	결혼 경로	한국어 능력	거주 기간
1	A	28	대졸	2019	초혼	0명	2세	친구 소개	중	5년
2	B	30	대졸	2017	초혼	2명	6세	친구 소개	중	7년
3	C	31	대졸	2017	초혼	1명	3세	학교 연애	상	9년
4	D	36	대졸 석사	2011	초혼	2명	10세	사내 연애	상	12년
5	E	29	대졸	2016	초혼	2명	1세	학교 연애	중	10년
6	F	32	대졸	2018	초혼	1명	2세	친구 소개	상	2년
7	G	25	대졸	2022	초혼	0명	8세	친구 소개	중	6년
8	H	24	대졸	2021	초혼	1명 남편 전처	7세	친구 소개	하	2년
9	I	26	대졸	2019	초혼	0명	0세	학교 연애	중	8년
10	J	53	고졸	2015	재혼	2명 전 남편	2세	식당 근무	중	9년

## 나) 연구절차

### (1) 예비 조사

여성결혼이민자 1명을 선정해 2시간가량 면접 예비 조사를 하였다. 사전 자료 분석을 통한 면접문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비면접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면접에 대한 반응과 의견 등을 관찰할 수 있다. 그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최종 면접 질문을 결정하기 위해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 (2) 본 조사

한국어 능력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자는 본조사에 앞서 참여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비형식적인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대상자의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후속 정식 면접에서는 대상자의 표현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를 중국어로 면담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 대화 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통제된다. 면접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사전 승인을 받으면 녹음 및 문자 채팅 기록을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주요 심층면접 내용은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의 목적과 예비조사에 따라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을 6가지 범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개인별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와 사회적 특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다음에는 연구대상자의 결혼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결혼 전의 생활, 결혼 과정, 결혼생활의 3단계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혼위기 발생 과정과 향후 국제결혼 생활에 대한 계획을 알아보는 부분이다. 주요 심층면접 내용은 [표 2-3]과 같다.

[표 2-3]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인구·사회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이, 성별, 출생년도, 최종학력, 직업, 동거가족 등</li> <li>• 결혼년도, 초혼/재혼 여부, 결혼 경로 및 체류자격 등</li> </ul>
결혼 전 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 가족생활실태(생활수준, 소득, 가족 수 등)</li> <li>• 중국의 이혼 및 별거에 대한 문화 등</li> </ul>
결혼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와의 만남경로, 중국 가족의 반응 등</li> <li>• 결혼중개업체의 소개과정 및 사전준비 등</li> </ul>
결혼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생활의 가족생활실태(거주지, 소득, 생활수준 등)</li> <li>• 중국가족에 대한 지원, 결혼생활의 기대치, 자녀양육 등</li> <li>• 결혼생활의 어려움 및 갈등 등</li> </ul>
이혼 위기 발생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혼위기 발생의 원인, 영향 요인 및 갈등의 해결노력 여부 등</li> <li>• 이혼위기 발생 후 본국 및 한국 가족과의 관계 변화 등</li> </ul>
이혼위기 요인 및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이혼 관련법에 대한 이해</li> <li>• 국제결혼 관계 지속 여부, 결정의 원인 및 영향 요인</li> <li>• 국제결혼 관계 지속 또는 종료하는 데 필요한 도움</li> <li>• 국제결혼 관계 지속 또는 종료 후 향후 삶의 전망</li> </ul>

### 3) 자료수집 및 분석

#### 가)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이며,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1대1 심층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이혼위기에 처했거나 경험했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절차를 소개하고, 다음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연구참여자로 지정하였다. 심층면접은 면접 대상자와 인터뷰 시간, 면접 방식(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협의한 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은 다음의 [표 2-4]와 같다.

[표 2-4] 자료 수집 과정

연구절차	일정	연구내용
1차 자료수집	2023. 03. ~ 04.	연구 대상자 선정 연구 대상 예비조사 진행(1명)
1차 자료분석	2023. 04. ~ 05.	심층면접 내용 정리(녹음 자료) 질문내용 수정
2차 자료수집	2023. 06 ~ 07.	연구 대상 본조사 진행(9명)
2차 자료분석	2023. 08. ~ 09.	심층면접 내용 정리 심층면접 내용 분석
연구결과도출	2023. 10. ~ 11.	연구결과 도출 연구제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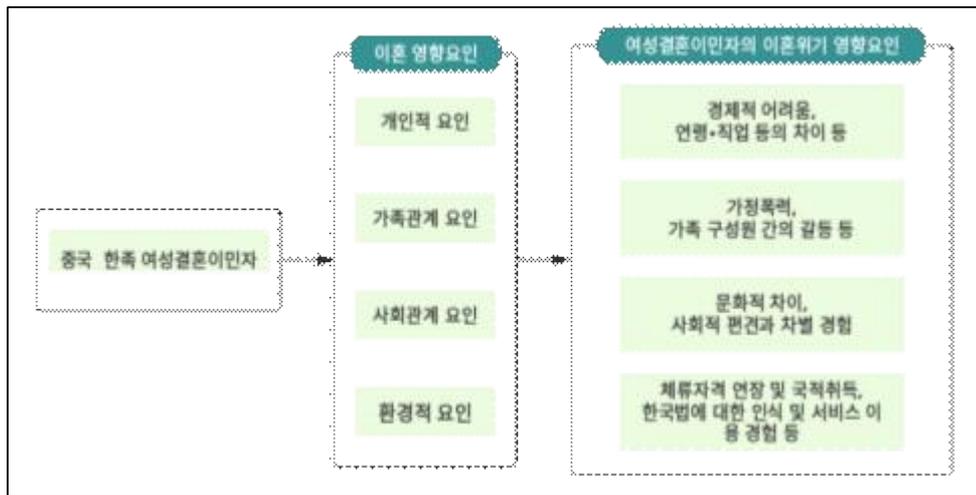
#### 나)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선택한 자료분석방법은 기록된 면담 내용을 범주화하여 이미

분류된 내용을 공통주제로 다시 찾아 소주제를 정하는 방식이다.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한 당일이나 다음날 녹음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하며, 보충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하여 다음 면담에서 확인한다. 범주화 후 연관성에 따라 소주제를 정한 이후의 면담 자료는 연구의 관련 자료와 대조하여 분석한다.

#### 4) 분석틀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 영향요인을 개인적 요인, 가족관계 요인, 사회관계 요인, 환경적 요인 네 가지로 나누어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원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현행 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 파악하여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조화로운 다문화가족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틀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2-1]과 같다.



[그림2-1] 연구 분석틀

# 제 3 장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실태 및 정부 지원 정책

## 제 1 절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유입 및 정착

### 1)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 유입

근대 한국의 국제결혼을 찾아보면 대부분 한국 여성이 출신국보다 제도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경제적 여건이 좋은 나라에 노동력을 공급하거나 결혼해 이주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다. 한국으로의 여성의 결혼이민 결정 동기는 주로 경제적인 동기와 한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산업화로 한국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한국 남성의 결혼 수요가 늘면서 전체 국제결혼의 72%를 차지하는 외국인 여성이 많이 들어왔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계기는 1992년 중국, 베트남과 수교한 것이 계기가 됐다. 또 1990년 이후 한국 예술 분야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류 문화로 해외 여성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한국의 음식문화, 역사, 지역 특성도 드라마를 통해 해외 시청자들에게 꾸준히 알려지며 매력적인 나라로 꼽히고 있다.<sup>26)</sup>

한국에서 국제결혼이 시작된 이래 국제결혼 관계에서 결혼한 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을 여성결혼이민자,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 또는 외국인 여성 배우자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려왔다. 여성가족부가 여성결혼이민자를 공식 호칭으로 선정한 계기는 2006년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가 발표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에서 비롯됐다.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7)</sup>

26) 류향하, 박낙중. (2018). 『포스트차이나 베트남』, 서울: 도서출판 참.

법무부의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된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요건 강화(2014년) 조치 이후에도 신규 유입되는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거나 출국하는 결혼이민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 결혼이민자의 수가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2020년 신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가 감소하였고, 2021년 결혼이민자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2022년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로 국가 간 이동이 수월해짐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sup>28)</sup> 2018~2022년 결혼이민자 현황은 아래 [그림3-1]와 같다.



출처 : 법무부 이민정보과, (2022),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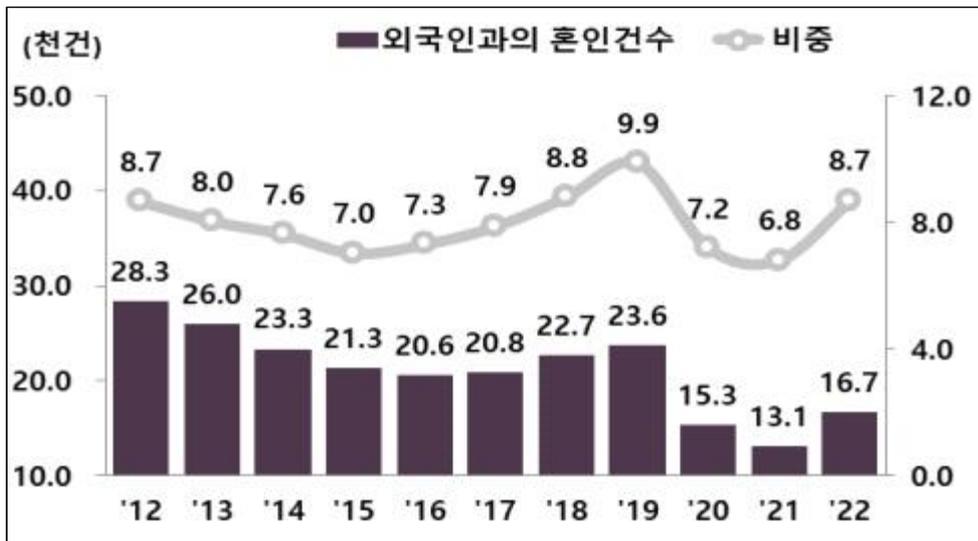
[그림3-1]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27)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 실태조사 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 방안". 보건복지부연구보고서, pp.1-350.

28) 법무부 이민정보과, (2022), 「2022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56.

## 2) 결혼이민자의 혼인 현황

통계청의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과의 혼인은 1만 7천 건으로 전년대비 27.2%(4천 건) 증가하였다.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은 1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33.6% 증가하였고,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은 5천 건으로 전년대비 13.2% 증가하였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8.7%로 전년보다 1.9%p 증가하였고, 외국인과의 혼인 중 외국 여성과의 혼인 비중은 72.0%, 외국 남성과의 혼인 비중은 28.0%를 차지하였다. [그림3-2]를 통해 2019년부터 국제결혼의 증가가 매년 감소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추세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때문일 것이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2년에는 국제결혼 건수가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sup>29)</sup>



출처 :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2), p.2

[그림3-2] 외국인과의 혼인, 2012-2022

2022년 결혼이민자는 국적별로 분류하는 경우는 [표 3-1]에 의하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혼인은 2022년 총 1만 2천7건으로, 베트남 3천 319건

29)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2). 「2022년 혼인·이혼 통계」, p.2.

(27.6%), 중국 2천 282건(19.0%), 태국 1천 932건(16.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이 600건으로 5.0%를 차지한다. 그 외 일본이 599건으로 5.0%, 필리핀이 4.2%로, 캄보디아가 3.5%씩을 차지한다. 전년대비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혼인 건수는 가장 많고, 베트남(151.6%), 태국(21.6%)은 증가한 반면, 중국(-5.9%)은 감소하고 있다.<sup>30)</sup>

[표 3-1]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2012-2022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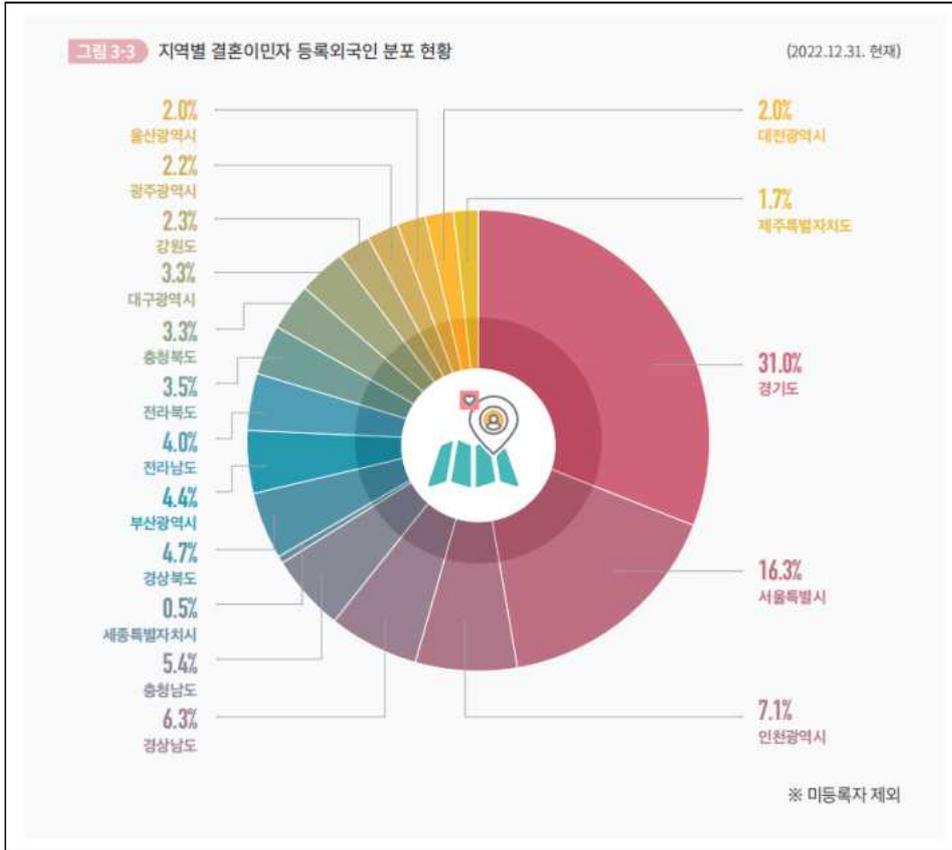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男+ 외국女	20,637	18,307	16,152	14,677	14,822	14,869	16,608	17,687	11,100	8,985	12,007	100.0	33.6
베 트 남	6,586	5,770	4,743	4,651	5,377	5,364	6,338	6,712	3,136	1,319	3,319	27.6	151.6
중 국	7,036	6,058	5,485	4,545	4,198	3,880	3,671	3,649	2,524	2,426	2,282	19.0	-5.9
태 국	323	291	439	543	720	1,017	1,560	2,050	1,735	1,589	1,932	16.1	21.6
미 국	526	637	636	577	570	541	567	597	432	457	600	5.0	31.3
일 본	1,309	1,218	1,345	1,030	838	843	987	903	758	723	599	5.0	-17.2
필 리 핀	2,216	1,692	1,130	1,006	864	842	852	816	367	260	509	4.2	95.8
캄보디아	525	735	564	524	466	480	455	432	275	137	422	3.5	208.0
기 타	2,116	1,906	1,810	1,801	1,789	1,902	2,178	2,528	1,873	2,074	2,344	19.5	13.0

출처 :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2, p.14

결혼이민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31.0%), 서울(16.3%), 인천(7.1%) 등 수도권 거주자가 54.4%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sup>31)</sup>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전년대비 모든 시도에서 증가하고 지역별 결혼이민자 등록 외국인 분포의 구체적인 상황은 [그림3-3]과 같다.

30)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2), 「2022년 혼인·이혼 통계」, p.14.

31) 법무부 이민정보과, (2022), 「2022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14.



출처 :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2, p.14

[그림3-3] 지역별 결혼이민자 등록외국인 분포 현황

## 제 2 절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와 이혼 추이

### 1)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실태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희생적 사고와 부모의 목인, 한국에 대한 부정확한 일방적인 정보와 더 윤택한 삶의 기대,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애정 없는 결혼 결정 등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생활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sup>32)</sup> 2022년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만 6천 666건, 이혼은 5천 810건으로 전체 혼인 건수 중 이혼이 34.9%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경제적 문제, 아버지와의 갈등, 가족관계, 생활방식, 가정폭력, 언어장애,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분석된다.<sup>33)</sup>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결혼 적응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사회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통계청의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외국인과의 이혼은 총 5천 810건으로 2021년 6천 173건에 비해 363건 감소하였다. [표 3-2]를 통해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은 4천 건으로 전년대비 8.2%(-0.4천 건) 감소하고,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이혼은 2천 건으로 전년과 유사한데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구성비는 6.2%로 전년보다 0.1%p 증가하고, 외국인과의 이혼 중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 비중은 68.2%,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이혼 비중은 31.8%를 차지한다.

---

32) 이해경. (2015).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7(3), pp.29-54.

33)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2). 「2022년 혼인·이혼 통계」, p.14.

[표 3-2] 외국인과의 이혼, 2012-2022

(단위 : 1000건, %, %p)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총 이혼건수	114.3	115.3	115.5	109.2	107.3	106.0	108.7	110.8	106.5	101.7	93.2	-8.4	-8.3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10.9	10.5	9.8	8.2	7.7	7.1	7.1	6.9	6.2	6.2	5.8	-0.4	-5.9
한국남성+외국여성	7.9	7.6	7.0	5.7	5.6	5.2	5.2	4.9	4.4	4.3	4.0	-0.4	-8.2
한국여성+외국남성	3.0	2.9	2.8	2.5	2.1	1.9	2.0	2.0	1.8	1.9	1.8	-0.0	-0.5
외국인과의 이혼 비중(%)	9.5	9.1	8.4	7.5	7.1	6.7	6.6	6.2	5.8	6.1	6.2	0.1	-

출처 :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2, p.28

2022년 결혼이민자의 국적별 이혼 상황은 [표 3-3]과 같다.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이혼은 2022년 총 3,961건으로, 이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38.1%), 베트남(26.3%), 태국(7.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년대비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베트남(-307건), 중국(-73건), 필리핀(-32건) 순으로 감소한다.<sup>34)</sup>

34)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2). 「2022년 혼인·이혼 통계」, p.29.

[표 3-3] 국적별 외국인과의 이혼, 2012-2022

(단위 : 건,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한국♂+ 외국♀	7,878	7,588	6,998	5,743	5,610	5,206	5,174	4,917	4,378	4,315	3,961	100.0	-8.2
중 국	4,204	3,797	3,402	2,830	2,703	2,351	2,275	2,104	1,674	1,584	1,511	38.1	-4.6
베 트 남	1,992	2,057	1,821	1,480	1,570	1,575	1,570	1,463	1,408	1,349	1,042	26.3	-22.8
태 국	129	133	107	101	107	132	143	169	229	276	311	7.9	12.7
필 리 핀	395	435	449	366	298	242	257	231	229	216	184	4.6	-14.8
일 본	254	259	290	235	186	172	180	193	142	143	161	4.1	12.6
미 국	105	114	117	107	111	137	114	127	87	129	139	3.5	7.8
캄보디아	180	152	155	137	157	134	157	139	120	119	100	2.5	-16.0
기 타	619	641	657	487	478	463	478	491	489	499	513	13.0	2.8

출처 :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2, p.28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매년 국제결혼 건수가 줄어들던 추세는 멈췄지만, 여전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건수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해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부갈등과 이혼을 유발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택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 후에도 경제적 문제가 계속된다면 경제적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의 시작이 결혼 문제의 폭탄이 될 수 있다.

둘째 부부간의 성격 차이, 폭력, 불건전한 생활습관 등은 일반 가정의 부부갈등과 마찬가지로 국제결혼 가족에서도 생길 수 있다. 다문화가족 특유의 문제로는 언어소통, 생활방식, 식습관, 가치관, 인생관 등 문화적 차이도 포함

된다. 한국문화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가 없고,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 중 하나이다.<sup>35)</sup>

국제결혼은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부부간의 인식 부족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후 부부갈등이 가속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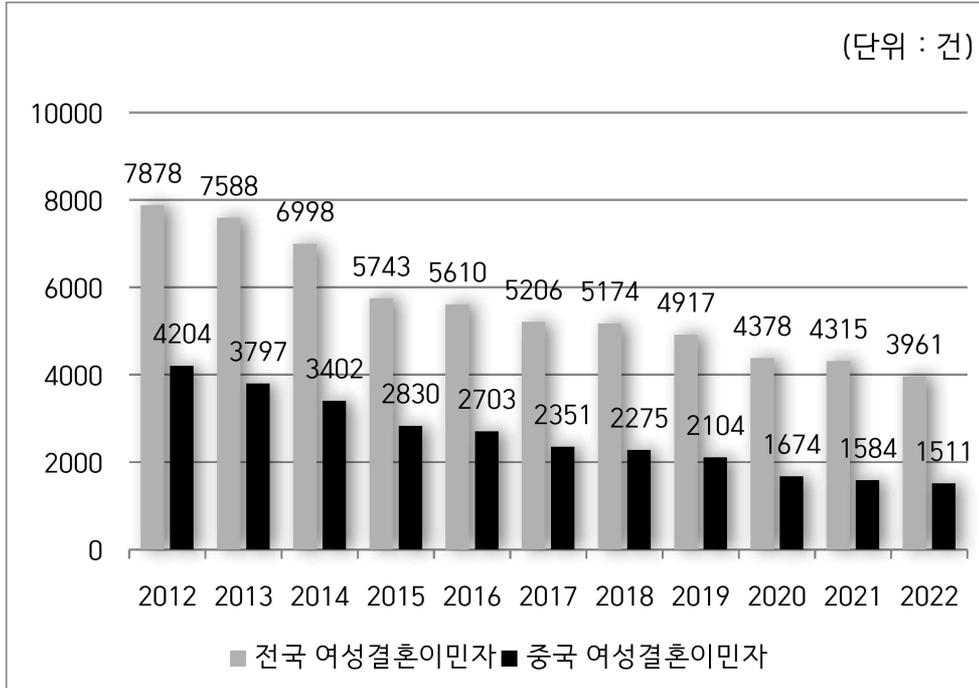
## 2)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추이

지난 10년간 전국과 중국 여성결혼이민자 이혼건수를 기록한 결과가 [그림3-4]에 나타나 있다. 먼저 전국의 여성결혼이민자 이혼건수는 2012년 7,878건에서 점차 감소하여 2022년 3,961건으로 3천 건 가까이 줄어드는 수준이다. 여성결혼이민자 혼인건수의 경우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데 비해 이혼건수는 일관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여성결혼이민자 이혼건수 또한 지난 10년간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 2012년 중국 여성결혼이민자 이혼건수는 4,204건이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2년에는 1,511건으로 나타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이 줄어들고 있지만 동시에 혼인건수도 줄어들고 있다.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2012년 혼인건수는 7,036건, 2022년 혼인 건수는 2,282건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이혼의 감소 폭은 전국이 지난 10년간 49.7% 감소하였고, 중국 여성결혼이민자는 64.1%가 감소하여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감소 폭이 전국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36)</sup>

---

35) 박진근. (2010).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해체(이혼)원인과 친권·양육권의 결정." 법과 정책연구 10.3, pp.1117-1142.

36)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2). 「2022년 혼인·이혼 통계」, pp.1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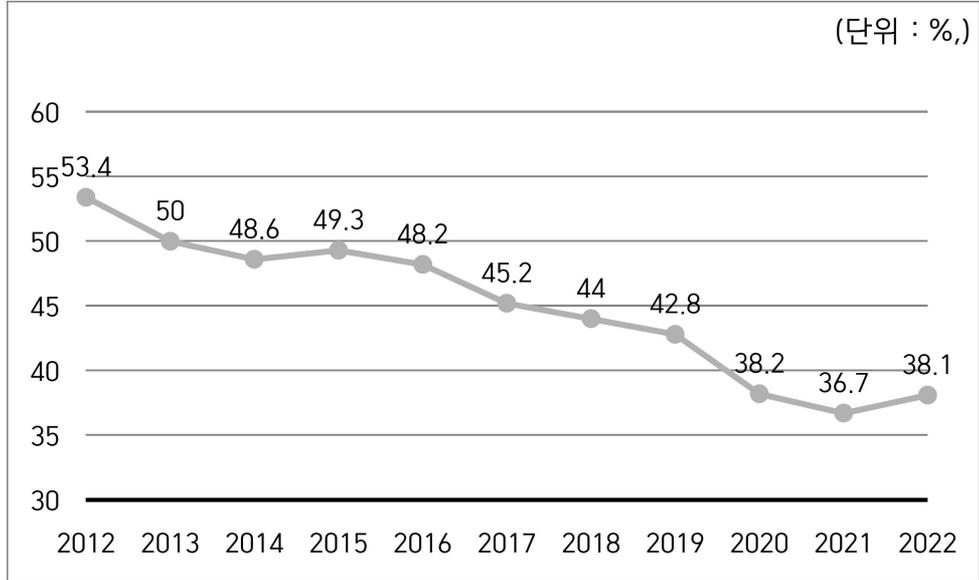


출처 :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2

[그림3-4] 전국과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추이(2012~2022)

[그림3-4]는 지난 10년간 전국대비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전국의 여성결혼이민자에서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53.4%였고 등락이 있었지만, 대체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해 향후 내림세로 돌아 설지는 예측하기 어렵다.<sup>37)</sup>

37)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2). 「2022년 혼인·이혼 통계」, pp.18-29.



출처 :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2

[그림3-5] 전국 대비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비중 추이(2012~2022)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혼인 기피 현상으로 인해 전체 혼인건수가 반등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향후 여성결혼이민자 혼인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끝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이혼의 경우는 이혼건수 자체의 증감보다 다문화가족은 비다문화가족보다 이혼 후 직면하는 위기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크며 이민자 가정의 특성상 사회적 네트워크 또한 부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으로 귀결되는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사전에 지원하고 이미 이혼을 경험한 다문화가족이 닥친 현실을 자세히 파악하여 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sup>38)</sup>

38) 김영혜. (2017). "다문화가족의 부부갈등과 이혼에 관한 연구". 경기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p.21.

### 제 3 절 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및 문제점

#### 1) 정부의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 현황

#####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한국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sup>39)</sup>

제17대 국회에서는 김충환 의원이 발의한 「혼혈인가 족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경화 의원이 발의한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 가운데 「이주민가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여성가족위원장이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을 제안함으로써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게 되었다.<sup>40)</sup>

[표 3-4]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내용을 총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목적 및 정의 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 “아동·청소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9) 「다문화가족지원법」, (20200519,17281,20200519), 제1조, 제3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2023.11.28.)

40) 전경근, (2015. )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pp.293-314. 『저스티스』 / 제146-2호, 한국법 학원, p. 297.

두 번째로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 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하고,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등 업무를 수행한다.

다섯 번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표 3-4]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

구분	내용
목적 및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다문화가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의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의4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실태조사 및 교육· 의료 지원	제4조 실태조사 등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9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10조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1조의2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 운영 등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2조의2 보수교육의 실시 제12조의3 유사명칭 사용 금지
지원기관교육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13조의2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제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4조의2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협업 및 자금 제도	제15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5조의2 정보 제공의 요청 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7조 과태료

## 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한국의 경제력과 문화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진출해 일하고 한국 국민과 결혼해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가족과 달리 다문화가족의 특별한 속성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은 2006년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2006년 4월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2009년 6월 「다문화가족지원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는데 2007년 7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08년 6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9월 「다문화가족 지원법」, 2009년 「외국인주민지원조례」 등이 그것이다.<sup>41)</sup> 이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12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발족함과 동시에 전국 각 도시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족센터)를 설치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국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생활 방식, 경제 상황, 자녀교육 및 결혼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정책의 내용도 지속해서 재구성, 보완 및 개선되고 있다. 2023년 수립되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3~2027)」을 보면 이 중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한 정부 지원정책은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 지원정책, 경제활동 참여 확대 지원정책,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지원정책,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정책의 네 가지 측면에서 주로 나뉜다.

### (1)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 지원정책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협업한 지원정책은 [표 3-5]에 잘 나타난다.

우선 결혼이민자를 위한 의사소통 및 조기 적응 지원정책을 마련한다. 가족

41) 김을지. (2021).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글로벌통합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센터를 통한 통역 서비스 제공과 실용 한국어 교육을 강화한다. 조기 적응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내용 및 가족 중심의 부부교육 등 각종 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여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상담, 수요 파악,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한다.

[표 3-5]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다문화가족 가구상황별 지원)

정책과제	지원정책	소관기관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및 조기 적응 지원</li> </ul>	여가부,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생활 정보제공 강화</li> </ul>	여가부

출처 : 관계기관 합동,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3, p.40

## (2) 경제활동 참여 확대 지원정책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응 단계에서 취업이라는 경제활동을 시작했지만, 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취업 과정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여성이민자들의 취업 기초소양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으로 한국어 능력 향상 과정을 제공하고, 가족센터에는 취업 기초교양 교육과정을 설치한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도 마련했다. 또 결혼이민자 농업인 양성을 위해 결혼이민 농업인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등 결혼이민자의 정착단계별 농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책은 결혼이민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취업 지원뿐 아니라 결혼이민자의 창업 시도도 장려한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창업상담, 업무훈련, 자금지원 등도 이뤄진다.

[표 3-6]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지원)

정책과제	지원정책	소관기관
결혼이민자 자립·취업역량 강화 지원	• 결혼이민자 자립·취업 기초소양 함양 지원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 결혼이민자 직무역량 강화 지원	여가부, 교육부
	• 결혼이민자 농업인 양성	농식품부, 지자체
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	• 결혼이민자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취업 지원	여가부, 고용부, 지자체
	• 결혼이민자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여가부, 중기부, 고용부

출처 : 관계기관 합동,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3, p.40

### (3)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지원정책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여성결혼이민자는 임신 단계부터 직장을 떠나 자녀 교육과 양육의 모든 책임을 떠맡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편이 가계지출을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교육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도 자녀들의 취학 과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개발 문제까지 합리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진로·직업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 다문화 후기 청소년(만 19세 이상) 지원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심리적·정서적 안정에 관한 지원과 차별 없는 학교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표 3-7]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과제	지원정책	소관기관
영유아 자녀양육 지원	• 부모교육 및 돌봄친화적 환경조성	여가부
	•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	여가부
	• 다문화 유아에 대한 교육 지원	여가부
학령기 다문화 아동 학습역량 제고	• 학교 교육 준비 지원	여가부
	• 학부모 역량 제고	여가부, 교육부
	• 학교 적응을 위한 징검다리 과정 운영	여가부
	• 한국어 교육 강화	여가부, 교육부
	• 기초학력 향상 지원	여가부, 교육부
	•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기초학력 제고	여가부
	• 이주배경 청소년 현황 분석	여가부, 통계청, 법무부, 교육부
	•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교육 등 사회 적응 지원	여가부
	• 학교밖 다문화 청소년 지원	여가부
다문화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 다문화 청소년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다각화	여가부, 교육부
	• 다문화 청소년 직업 교육 강화	여가부
	• 이중언어 교육 및 인재DB 활용 활성화	여가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교류 참여를 통한 다문화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li> </ul>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후기 청소년 지원 수요 등 실태 파악</li> </ul>	여가부,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연계</li> </ul>	여가부, 고용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센터 내 다문화 아동·청소년</li> <li>•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대</li> </ul>	여가부, 외교부, 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안팎 심리상담 지원체계 강화</li> </ul>	여가부,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 운영</li> </ul>	여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교육 모델 개발</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다문화 청소년 지원</li> </ul>	여가부, 교육부

출처 : 관계기관 합동,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3, p.39

#### (4)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정책

여성결혼이민자가 부부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 역할을 하고 결혼 전 부부의 인지 부족 등으로 남편이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대한 지원책은 장기적으로 다각적인 체계와 프로그램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폭력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이 폭력피해 지원체계 안내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상담소·보호시설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무부의 체류 안정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표 3-8]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과제	지원정책	소관기관
입국 전-입국초기의 폭력피해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 현지사전교육,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의 폭력피해 예방 교육 강화	여가부, 법무부
	• 폭력예방교육 운영 확대	여가부
폭력피해 대응체계 내실화	• 가정폭력 등 실태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	여가부
	• 다기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긴급지원	여가부, 경찰청, 지자체
	• 폭력피해 지원체계 안내 등 접근성 제고	여가부, 경찰청
폭력피해자 보호·자립 지원 강화	• 전문상담소·보호시설을 통한 지원 강화	여가부, 경찰청
	• 폭력피해자에 대한 체류안정 지원 강화	법무부

출처 : 관계기관 합동,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23, p.40

#### (5) 결혼이민자 이혼문제 관련 서비스

다누리 콜센터는 이주여성의 정착단계 및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긴급지원 등의 인권 보호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다.<sup>42)</sup> 다누리 콜센터의 서비스 내용은 아래 [표 3-7]과 같다.

42)다누리 콜센터. 홈페이지. (2023).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main/main.do> (검색일자:2023.11.28.)

[표 3-9] 다누리 콜센터의 지원 서비스

구분	내용
폭력피해 긴급지원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피난시설 운영(아동 동반 가능)</li> <li>•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시설 연계</li> <li>• 의료·법률·검찰·경찰 서비스 등 연계</li> </ul>
종합생활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교육, 자녀 지원 안내</li> <li>• 체류·국적·법률·노동·취업 정보 제공</li> </ul>
생활통역 및 3자 통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내 의사소통 지원</li> <li>•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3자 통역(경찰, 응급, 병원, 주민센터, 교육기관, 은행 등)</li> </ul>
가족상담 및 부부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갈등해소를 위한 상담, 심리정서, 통역 지원</li> </ul>
변호사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변호사협회 연계 법률상담 진행 - 매주 화요일 14:00~16:00(주1회), 사전예약</li> </ul>

출처 : 다누리 콜센터

폭력피해 긴급지원 및 사후관리의 내용은 긴급피난시설 운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시설 연계, 의료·법률·검찰·경찰 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또한 종합생활정보는 한국어 교육, 자녀 지원 안내, 체류·국적·법률·노동·취업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통역 및 3자 통화 서비스는 가족 내 의사소통 지원하여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3자 통역을 제공한다. 가족 상담 및 부부 상담은 가족 갈등 해소를 위한 상담, 심리·정서, 통역 지원한다. 변호사 상담은 대한변호사협회 연계 법률상담 진행한다. 서울 지역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서비스 언어는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13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스어, 우즈베크어, 네팔어)로 상담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방법은 전화 상담으로 24시간 3자 통화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으로 다누

리 포털사이트에서 1:1 상담실을 이용할 수 있다. 방문 상담으로 다누리 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찾아가는 상담, 상담원과 상호일정 조정이 가능하다. 면접 상담으로 다누리 콜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예약 상담을 한다.<sup>43)</sup>

## 2) 결혼이민자 지원 정책의 문제점

정부의 다문화 지원정책과 다누리 콜센터의 서비스 내용을 결합하면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세부적으로 계획돼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리하면 아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서 하달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해 이뤄진다. 이 중 지자체는 중앙에서 위임받은 지원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해결정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성과 능력의 유한성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 인력 부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지원 예산의 부족이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욕구를 각 지역의 독특한 특성에 맞게 충족시키고자 하는 문제는 집행과정에서 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홍보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으로 지원정책의 내용에 대한 홍보 범위가 다시 확대되었음에도 향후 5년 동안의 구체적인 홍보 효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는다. 일부 가구는 지원내용을 파악한 뒤 가정형편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차례 지원센터에서 자금지원 등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중 일부는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고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지 못해 가계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정책에 대한 보다 전면적인 홍보와 지원 대상 실태 검토 강화, 과도한 지원이 자원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3) 다누리 콜센터. 상담실, 다누리 콜센터. (2023). "서비스 내용".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검색일자:2023.11.28.\)](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검색일자:2023.11.28.))

셋째, 폭력행위를 하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교육 부족이 있다. 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내용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지원은 주로 현지 사전교육(결혼이민자),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배우자) 내 폭력피해 예방 관련 교육내용 모니터링 및 개선이다. 교육대상자는 결혼이민자와 배우자뿐이다. 하지만 일부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 중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자매인 경우가 있다. 신체적 폭력이든 언어적 폭력이든 아직 적응단계에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는 큰 상처인 만큼 가정폭력 예방 홍보 대상자를 늘려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현실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 기관의 실효성 부족과 지원센터 홍보의 사각지대,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정책의 미비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에 대한 철저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

## 제 4 장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 영향 요인

심층 면접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소통의 장애, 문화 차이, 고부 갈등, 경제적 어려움, 남편의 외도, 국적 문제, 자녀교육문제, 가정폭력 등이 이혼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인적 요인, 가족관계 요인, 사회관계 요인, 환경적 요인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 제 1 절 개인적 요인

#### 1) 경제적 어려움

외국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선택하는 일부 한국 남성 가족들은 그 자체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상대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한다면 결혼 후 가정의 경제적 지출은 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처럼 경제 사정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일수록 당연히 이혼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일부 여성들은 출신국에서의 생활 여건이 좋으므로 한국에 와서 가정환경이 이전보다 좋아지기를 바라며 더 좋은 차를 사거나 더 큰 집으로 바꾸려는 열망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대도시에서 거주할 경우 땅값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러한 소원을 이루기까지는 매우 힘들고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모으느라 생활자금이 빠듯해지고, 일부 여성들은 자신의 생활 수준이 떨어진다고 느껴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모국으로 돌아가 더 편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참여자 · A) "저는 외동딸이고 부모님도 돈이 많으셔서 중국에

원래 차가 두 대 있는데 부모님께서 큰 집도 사주셨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결혼해서 서울에 살면 집값도 비싸요. 차를 팔면 주차공간이 있는 집을 다시 찾아야 했고, 차 유지비와 유류비도 큰 지출이어서 차를 사지 못했어요. 지금은 매달 정해진 집세 등 생활비를 빼고 쇼핑, 미용, 피트니스 등으로 돈을 모을 수 없어요. 회사에서 가까운 큰 집으로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보니 한국에 사는 것보다 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까? 늘 머릿속에 떠오르던 질문이었지만 남편과 이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그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내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럴 때마다 회사를 그만두고 중국으로 돌아가 살고 싶지만, 막상 돌아가 별거 중인 두 나라의 결혼 상태가 된다면 힘들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참가자 A의 경우 중국에서의 생활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좋았다. 한국에서 남편과 결혼하면서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부부 둘의 수입으로는 원하는 소비를 하지 못한다. 중국에 돌아가서 살면 자기 집에서 살 수 있고 차를 사는 데도 문제도 없다. 하지만 중국에 돌아가 살면 오랜 별거 상태는 이혼과 비슷하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 E) "남편은 결혼 전에 결혼하면 그는 돈을 버는 일을 담당하고 저는 가정주부로 살겠다고 했지만, 현재 그는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만 주고 있고, 돈을 주는 기간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러 가야 할 만큼 안정감이 없었어요. 가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전혀 부족해서 물건을 살 때 카드로 결제할 때 항상 잔액이 부족하다고 표시돼요. 그러나 그는 내가 출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불평했어요."

참여자 E의 경우는 남편이 결혼 후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했지만 매달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참여자 E는 주부 생활을 포기하고 직장을 나가야 했지만, 남편은 반대했다. 참여자 E는 남편이 결혼 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삶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도 주지 않았다고 느꼈다.

(참여자 F) "매일 남편과 싸워서 사치품을 많이 샀는데, 남편은 그걸 알고 돈을 함부로 쓴다고 비난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돈을 쓰면서 왜 그의 눈치를 봐요."

참여자 F의 경우는 중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수입이 많아 예금이 많다. 하지만 한국에 오면 자기 돈을 써도 남편이 화를 낸다. 남편이 한국에 돌아와서 중국에 있을 때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 I) "결혼 이후 집세 같은 비용을 모두 남편이 지불했기 때문에 싸울 때마다 돈 문제로 나를 비난하며 이혼하면 돈을 갚으라고 했어요."

참가자 I의 경우는 졸업하자마자 남편과 결혼했다. 당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생활 비용을 남편이 부담했다. 그래서 지금도 싸울 때마다 남편은 돈으로 협박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에서 생활비 어려움, 소비관념의 차이, 가계지출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때 배우자의 무시와 비난, 몰이해적 태도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결혼에 대한 실망감을 주고 결혼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 2) 연령, 직업 등의 차이

연령 차이, 직업 차이도 이혼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연령이 25-29세일 때, 부부의 연령차가 가장 많을 때,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 직업이 무직이거나 기타일 때, 월평균 소득이 가장 낮을 때,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결혼 생활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up>44)</sup>

(참여자 C) "막 졸업했을 때, 나는 직업이 별로고 월급도 적어서 사고 싶은 옷을 보면 남편 눈치를 봐야 해요. 비천하게 살고 있다고 느꼈어요."

참여자 C의 경우는 직장을 처음 시작했을 때 직장의 소득이 낮아 남편과의 소득 차이가 크게 난다. 일상생활에서 남편의 눈치를 자주 봐야 할 정도였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 모임에서 시어머니가 다른 며느리보다 못하다고 눈치를 주기도 한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에 참여자 C는 자존심이 상한다고 응답하였다.

(참여자 D) "남편이 저보다 10살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달라요. 그는 심지어 제 생각을 통제하려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우스운 생각만 하고 유치하고 철없다고 해요."

참가자 D의 경우는 남편과 10살 차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자기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의 많은 일들에 대해 참가자와 상의해 결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부정하기 일쑤였다.

부부생활에서는 연령 차이든 직업 차이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부부 모두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상대방의 생각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연령과 직업의 차이로 인한 사상적, 심리적 압박감이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이혼에 관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 3) 생활방식의 차이

---

44) 우영희, 하규수. (201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2), pp.8535-8549.

참여자 A, E, I, F, H의 경우 모두 배우자의 행동이나 생활방식의 차이가 결혼 생활에 가져오는 문제를 보여준다.

(참여자 A) "나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시켜 먹어서 결혼 후 살이 많이 찼어요. 남편은 매일 운동을 하므로 몸매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내가 게으르고 운동도 안 하고 매일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곤 해요. 내가 똥똥해지고 못생겨졌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속상해요."

참가자 A의 경우 건강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남편의 생활 방식과 달리 운동을 싫어하고 배달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것이 남편이 자신을 비하하는 이유가 되었다. 참가자 A가 이해하는 결혼 관계는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지, 듣기 싫은 말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온건한 의사소통 방식은 사람들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참여자 E) "그는 담배를 집에서 피우는데, 밖으로 나가라고 해도 듣지 않고, 아이도 집에 있는데, 방 안에서 피우고 나서 창문을 열지 않아서 정말 싫어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자기 방에서 게임을 하고 아이와 놀지도 않았어요."

"그는 지금 골프에 빠져 매일 밖에서 골프를 치고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평소에 밖에서 술 마시고 놀면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요."

(참여자 I) "그는 매일 밤 게임을 해요. 여러 게임을 동시에 하고 스피커를 켜면 소리가 너무 커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참가자 I와 참가자 E의 경우는 모두 남편의 담배, 게임 등 나쁜 취미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정상적인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참가자 I는 오랜 수면 불량으로 인해 이미 이명과 두통,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었다. 참가자 E 남편의 행동은 부자간의 친밀도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아버지상을 심어주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골프를 하는 것의 자체는 건강한 운동이지만 남편이 그 속에 지나치게 빠져드는 것은 집안의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아니다.

(참여자 F) "남편은 젊었을 때 술과 담배를 하고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까지 해서 몸이 안 좋아서 집안일을 제가 다 해서 힘들어요."

참가자 F의 경우 남편 자신이 심장질환으로 집안일을 분담할 수 없는데도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어 심장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간단한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여자 H) "그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나는 그를 믿고 그와 사귀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한국에 와서 그의 부모님과 대화의 통채를 통해 그가 저와 1년 동안 사귀고 나서야 이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매번 그의 전처를 언급할 때마다 그는 매우 화를 내고, 그래서 평소에도 저는 그의 전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참가자 H의 경우는 다른 참가자의 남편과 달리 생활 습관상 나쁜 행동일 뿐이다. 참가자 H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속임수를 써왔다. 그러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부부간의 갈등은 배우자의 행동과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결혼 관계에서의 생활습관과 일 처리 방식은 일반적인 한국 부부들보다 잠재적인 부부갈등이 많다. 이런 갈등이 생기면 한쪽은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만 다른 한쪽은 갈등을 무시하는 상황이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이끈다.

#### 4) 종교적 신념의 차이

중국 한족은 거의 모두 종교가 없다. 그래서 남편이 종교적인 이유로 집안의 일을 결정할 때 중국 한족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는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 때, 부부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참여자 F) "남편은 점을 친다는 이유로 아이의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저는 뜬금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참가자 F의 경우는 남편이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운세를 점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소한 일은 남편의 말을 듣고 넘어가는 듯하더니 점쟁이의 의견에 따라 아들 이름에 문제가 있다며 아들의 이름까지 고치려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원래 꿈꾸던 아름다운 생활은 그가 늘 점을 보러 가는 바람에 엉망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 5)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의 문제는 언어장애로 인한 부부간의 몰이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부부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다르므로 부부간의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까지 포함한다. 비록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해 한국어를 배웠을지라도, 실제 생활에서 언어를 구사하는 과정은 생활 습득에 불가피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결혼이민자들은 직장에서 언어 소통의 한계와 개발도상국 출신에 대한 한국인들의 차별적 태도로 인하여 한국인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

(참여자 A) "중국으로 돌아가 살고 싶은 것은 한편으로는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언어 문제이기도 해요. 남편이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결혼을 해도 한국어가 너무 늘지 않았어요. 일도 중국 고객 접대에는 한국어를 잘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살다 보면 한국어가 서툴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생활이 편할 것 같아요."

(참여자 D) "처음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을 때는 항상 고객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어 경영이 좋지 않았어요."

(참여자 H) "내가 그를 만난 것은 중국에서였어요. 그때는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다. 결혼 후 그와 함께 한국에 와서 살기 위해 한국어를 배웠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나가서 밥 사 먹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언어 소통 문제는 부부의 결혼생활에 불가피한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갈등을 초래한다. 언어 소통의 문제는 일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잘못하는 데 대한 고객이나 상사, 동료들의 무시와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언어능력을 향상하지 못하면 한국에서의 결혼생활과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제 2 절 가족관계 요인

### 1) 가정폭력

#### 가) 언어폭력

언어폭력은 욕설, 비방, 멸시, 조롱과 같은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정신적, 심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정신적 피해의 범주이다. 주요 표현 형식은 주로 다음과 같다. 모욕하거나 폄훼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놀리는 것, 다른 사람의 견해와 의견, 욕구를 무시하거나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종종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경멸하는 표정과 언어를 보인다. 화를 내거나 멀리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얻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위협과 통제의 목적을 위해 미묘한 협박이나 부정적 표현을 이용해 공격한다.

(참여자 C) "남편은 집에서 욕설을 많이 하는데, 욕설은 크고 모욕적이어서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결혼하기 전과 전혀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참가자 C의 경우는 욕설과 같은 모욕적인 언어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경우이다. 동시에 남편의 결혼 전과 후의 태도 차이도 부부관계에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자 G) "매번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는 며칠 동안 저를 무시하고,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하지 않으며,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 집에 가지도 않아요. 저는 이런 언어적 폭력이 싸움보다 더 가슴 아프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G의 경우는 남편이 의견을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변화를 조종하는 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고 있다.

(참여자 I) "그와 이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는 욕을 하기 시작하고, 그는 저를 욕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욕해요. 이혼하면 신고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그와 결혼했다고 해요."

참가자 I의 경우 남편은 욕설과 비방을 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혼인 관계를 지속하도록 협박을 가했다.

#### 나) 신체적 학대나 폭력

다문화가족에서 언어적, 행동적 폭력, 인권침해, 가혹행위는 이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제도적으로 체류자 중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쉽다.

(참여자 B) "매번 싸울 때마다 남편은 컴퓨터 게임을 하며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나는 화가 나서 컴퓨터를 켜는데, 그는 마우스를 바닥에 던지고 나를 세계 벽에 밀어붙였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고 이 남자와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머리에 떠올랐어요."

(참여자 J) "그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때리고 화풀이를 해요. 한번은 그가 저를 때린 후 저는 큰딸의 집으로 숨었어요. 결국 그는 제 딸의 집으로 달려가 저를 찾았고, 심지어 제 딸을 때리려고 했어요."

참가자 B와 참가자 J의 경우는 두 남편의 폭력 정도만 다를 뿐 배우자가 신체적 폭력을 가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런 환경에서 오래 살면 점점 더 불안하고 우울해지며 자아를 의심하게 되고 타인을 의심하게 되며 점차 자아를 상실하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 다) 행동 통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부부 중 어느 한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부부관계를 완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길로 치닫게 할 것이다.

(참여자 E) "직장 관계 때문에 남자 동료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 화를 내면서 연락처를 지워달라고 해서 출근을 못하게 했어요."

(참여자 H) "저는 일본에 가서 석사학위 받을 계획이지만, 제 남편은 제가 일본에 가면 그의 통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는 제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제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요."

(참여자 I) "남편은 최근에 장사가 잘 안되어서 늘 집에서 나를 감시해요. 그가 집에 없더라도 시어머니에게 집에서 나를 돌보게 할 것이에요."

(참여자 J) "저의 막내딸은 중국에서 막 아이를 낳았어요. 딸은 제가 중국에 돌아가서 아이를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내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딸과 연락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참가자 E, H, I, J의 경우 모두 여성결혼이민자가 중국으로 돌아가거나 친지들과 연락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은 남편에 의해 신체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제한받았다.

국제결혼은 일반 결혼보다 그 자체로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등의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제결혼 부부는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면 싸우거나 화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부부관계를 안정적으로 회복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한국인 남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포기하고 외국인 아내에게 언어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종합하면, 폭력 빈도가 높을수록 이혼의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폭력은 이혼의사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한국 남성들은 가정 내 가부장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행동 통제를 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족관계에서 수동적이고 미천한 역할에 놓이게 된다.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행동 통제 같은 가정폭력은 결혼을 실패의 길로 이끌 뿐이다.

## 2)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가부장적 가족 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결혼이 자신에게 어떤 역할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 갑작스럽게 결혼생활로 접어들면서 일상생활의 리듬 변화와 한국 전통문화의 단편적 이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적응과정을 어렵게 만든다. 가족들이 한국인 부인이나 며느리가 하는 것처럼 원하면서도 자세한 설명과 지도를 해주지 않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

(참여자 B) "시어머니는 내가 잘못할 때마다 "왜 또 그래! 도대체 왜 외국인과 결혼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 해!"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자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런 투덜대는 말을 많이 들으면 빨리 시어머니 집에서 도망치려고만 해요."

(참여자 D) "당시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결혼을 결심했고 앞으로의 결혼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커요.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완전히 고통스러웠고, 가족 모임에서 실수할 때마다 꾸중을 들었어요. 시누이도 내가 실수하는 장면을 기대한 듯 비웃으며 쳐다봤어요."

(참여자 F) "시어머니는 늘 남편과 내가 나쁘다고 불평한다. 시어머니는 내가 중국에서 돌아와도 전화할 줄 모른다고 했지만, 남편은 전화도 안 하고 나만 비난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한국에 온 이후로 아들은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 시부모님 모두 내 아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참여자 G) "남편은 퇴근하면 먼저 그는 누나의 집에 가서 조카들과 놀아주곤 했는데, 나는 이런 가족 모임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제가 집에 혼자 남아 있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한밤중에 아주 늦게 돌아와요."

"그가 어렸을 때 가정이 어려웠으므로 누나가 그를 많이 돌봐주었어요. 나는 그가 은혜를 갚으려 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이미 결혼하여 자신의 가정을 가졌으나 그의 마음속 순위는 내가 최후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참여자 I) "남편과 우리 엄마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다. 매번 내가 엄마에게 돈을 보내려고 할 때마다 그는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엄마도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만약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혼하고 중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내가 헬스하러 가고 싶다고 말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나가서 돈을 쓰느니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참여자 J) "저는 나이도 많고, 돈도 좀 모아서, 막내딸도 일을 그만두고 중국으로 돌아가 함께 살라고 한다. 하지만 내 남편은 내 두 딸을 매우 싫어해서 내가 그녀들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그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다. 나는 딸과 왕래하지 않으면 더 나이가 들어 한국에서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한국인 배우자로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준비과정의 부족한 채로 혼인을 서둘러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가족 내의 차별로 인해, 상당한 부적응 문제를 보이는 실정이며,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시부모의 며느리에 대한 통제가 존재함으로 인해, 시댁과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혼인상태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결혼 적응단계에 더 큰 장애가 생겨 별거와 이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 3) 자녀 양육

자녀 양육문제도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중국에서는 현재 일부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늦게 낳거나 안 낳는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 이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출산에 대한 거부감과 시댁의 새 생명에 대한 기대는 결혼 문제의 잠재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참여자 A) "결혼보다 아이를 키우는 데 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고, 따뜻한 가정환경, 안정적인 경제 상황, 출산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 그리고 아이를 동반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아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 부모님은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아이를 낳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싸워요."

(참여자 C) "왜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차별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아이가 다른 아이들도 이런 이유로

친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어릴 때부터 한국어와 중국어를 배우는 아이를 원했지만, 남편 가족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심지어 집에서 아이와 중국어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건 정말 무리예요."

(참여자 D) "첫째 아이의 교육 문제에 대해 당시 저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항상 자신이 아이가 말하는 한국어에 영향을 줄까 봐 걱정해요. 그래서 애랑 얘기를 덜 하게 되고요. 지금도 큰아들과 나 사이에는 늘 소외감이 있어요."

(참여자 E) "그는 아이를 낳고 난 후 내가 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나 혼자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었어요."

"나의 아들과 딸은 모두 병이 나서, 저녁에 병원에 가서 응급 진료를 받았는데, 하지만 내 남편은 여전히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참여자 F) "아들이 한국에 온 후 환경이 변한 데다가 우리가 자주 싸우는 바람에 안정감이 없어져서 거의 24시간 동안 저를 따라다니다가 제가 화장실에 가고 샤워를 할 때마다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 중국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왔어요. 저는 지금 제가 도대체 잘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밥을 먹을 때 나는 아들에게 휴대전화를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굳이 아들에게 휴대전화를 주려 해요."

(참여자 H) "그는 항상 내가 그의 아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한국말도 잘못해서 그의 아이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참여자 I) "나는 일찍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남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아이를 낳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와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나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다문화가족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국적상 한국인으로 인정받지만, 한국의 단일민족이라는 성격 때문에 혼혈인이라는 신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할 수 있다. 자녀의 언어교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신의 어설픈 한국어가 자녀의 언어습득 과정에 영향을 미칠까 봐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줄어들어 어머니와 자녀 간의 사이가 틀어지게 된다. 게다가 부모들은 각자의 교육체계가 다르므로 향후 자녀 교육에 대한 불일치를 겪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쌓이면 결혼의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4) 부모 봉양

당시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때문에 거의 모든 가정에 아이가 한 명뿐이었다. 하지만 여성결혼이민자로 한국에 와서 살다가 중국에서 살게 된 부모의 양육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특히 부모의 건강이 나빠지면 부모의 양육문제는 부부간에 불가피하게 논의를 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다.

(참여자 F) "지난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만 남았으니 혼자 중국에서 살고 있다는 게 불안해서 중국으로 돌아가 살려고 해요."

(참여자 I)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다. 나는 중국에 가서 어머니를 돌보고 싶어요. 하지만 남편은 내가 한국을 떠나지 못하게 했고, 그는

내가 돌아가면 그와 이혼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참가자 F와 참가자 I의 경우는 모두 부모의 몸 상태가 나빠져서 자녀의 동반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에 돌아간다는 것은 남편과 별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일에 대한 남편의 태도는 참여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고, 모두 거절하는 태도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부모라고 생각하는데, 왜 남편은 그의 부모에게만 관심을 두고 자기 부모에게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의 가족 문화에서는 '모든 일은 효(孝)가 먼저다'라며 남편의 이런 불효행위에 대해 참을 방법이 없다.

### 제 3 절 사회관계 요인

#### 1) 문화적 차이

(참여자 E) "아들을 사진관에 데리고 가서 증명사진을 찍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사진 속에 흑백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나는 더욱 괴로웠어요. 남편에게 말하고 옮기 시작하다가 결국 화가 나서 사진을 찢어버렸어요."

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다. 여성결혼이민자는 남편, 친지, 직장동료와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민속·전통습관, 생활 방식, 가치관, 종교신념 등 문화적 차이로부터 의식대립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과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문화적 차이와 더불어 문화적 정체감 또한 한국 사회적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런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부부관계에도 소원한 잠재성이 존재한다.

#### 2)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험

(참여자 A) "항상 쇼핑하다가 직원이 내 한국말을 듣고 내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갑자기 태도가 나빠져요."

(참여자 F) "남편이랑 많이 싸워서 시어머니가 집에 올 때마다 이웃 아주머니가 시어머니한테 내 험담을 해요. 아주머니는 중국 며느리를 찾아서 이렇게 가정불화가 된 것이지 한국 사람이면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참여자 G) "우리 집 근처에 마트가 있는데 왜 점원이 계산해

줄 때마다 태도가 안 좋고 존댓말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가자 F의 경우,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옆집 아주머니가 자신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 불편했다. 말로 인해 그는 차별과 편견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외모와 화법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무시당했다. 참가자 모두가 불편함을 호소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귀화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생활에서 차별이나 차별을 받는다. 일상생활, 직장 활동, 사회기관, 자녀의 학교 활동 등 여러 곳에서 경험하였다. 이런 경험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주민이나 시민의 정체성을 갖기 어렵다.

## 제 4 절 환경적 요인

### 1) 체류자격 연장 및 국적 취득

결혼이민자들은 간이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②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③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위 ①호나 ②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사람, ④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위 ①호나 ②호의 거주기간을 충족한 사람 4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sup>45)</sup>

(참여자 B) "전에 한번 국적을 신청했지만, 면접에 실패했어요. 신청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참여자 I) "이혼 후 한국 국적이 취소될까 봐서 걱정해요. 가끔은 싸울 때 화가 나서 국제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결혼했다는 볼멘소리도 한다. 남편이 몰래 녹음할 줄은 몰랐어요."

여성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게 된 동기는 대부분 한국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간이귀화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한 미숙함, 신청 실패 경험 때문에 한국 단일민족국가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속한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 2) 한국법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이용 경험

---

45)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3). "한국생활안내". <https://krguide.kr/KOR/main.do> (검색일자:2023.11.20.)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막막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지원책과 한국법에 대해 잘 몰라서 결혼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시간을 놓칠 수 있다.

(참여자 E) "코디네이터나 심리상담사를 찾아서 혼인 관계를 복원하라고 했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참여자 F) "아기를 낳고 나니 우울해서 한국에 나 같은 외국인 아내에게 심리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여자 G) "저는 한국의 직장에 관한 고용법에 대해 잘 모르고, 변호사를 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제게 밀린 월급보다 더 많은 변호사비용을 지급해야 할까 봐 걱정해요."

(참여자 I) "아무리 정책 내용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 많은 글자, 그것도 한글을 보기에는 참을성이 없어요."

이혼위기에 처한 여성결혼이민자는 이혼에 따른 일상생활, 가족관계 등 고민에 직면했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누리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받지만, 시기별로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국제결혼 관련 법률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또 본 연구의 참여자 중 세 명은 지원센터에 대해 들어봤고, 일곱 명은 지원센터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내용도 거의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혼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및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위기 지원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다.

### 3) 직장 내 문제

(참여자 G) "내가 지난 직장에서 퇴직한 후 회사는 내가 외국인이라 퇴사하면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지막 한 달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여성결혼이민자가 직장 내 사기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개인소득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과 정력을 많이 소모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와 회사가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 5 장 결론 및 제안

본 연구는 이혼위기에 처한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원래 국제결혼은 일반 결혼에 비해 결혼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 결혼에 앞서 이국적인 연애 등 시차와 지역 문제 등으로 다문화가족 형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혼하면 한국 결혼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이 해체되는 것은 안타깝다. 이와 함께 이혼에 따른 재산 분배 문제, 자녀 귀속 문제, 국적 문제 등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많은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이혼 후 경제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한국 여성은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약 50%의 재산분할을 한다. 이혼 이주여성은 이혼 전 배우자의 폭력으로 가출하여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가출을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었으며, 이혼 이주여성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으로 재산 나눌 재산조차 없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혼 후 자녀 양육에 있어 이혼 여성이민자의 부모가 곁에 없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이나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이혼 여성 본인이 나서야 한다. 이렇게 되면 취업과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자녀와 사업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도 이혼 이주여성에게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이혼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가족관계 요인, 사회관계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연령·직업 등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종교적 신념의 차이, 의사소통 능력 등이 해당한다. 경제적 어려움은 국제부부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 구성원이 건강상의 문제를 겪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더욱 부각할 수 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연령, 직업 등에서 큰 차이가 있으면 대인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이 또한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요인 중 하나이다. 부부간의 갈등은 배우자의 행동과 생활 방식의 차

이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특히 국제결혼 관계에서의 생활습관과 일 처리 방식은 일반적인 한국 부부들보다 부부갈등이 더 많다. 이런 갈등이 생기면 한 쪽은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만 다른 한쪽은 갈등을 무시하는 상황이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이끈다. 종교적 신념의 차이 경우 중국 한족은 거의 모두 종교가 없다. 이에 따라 남편이 종교적인 이유로 집안의 일을 결정할 때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 때, 부부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의사소통의 문제는 언어장애로 인한 부부간의 물이해뿐만 아니라 언어사용의 부정확성과 문자표현의 실수로 인해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놀림이나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러한 상황 증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의 문화적 포용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한국을 떠나려는 생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둘째, 가족관계 요인에는 가정폭력,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자녀의 양육, 부모의 봉양이 있다.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행동 통제 같은 가정폭력은 결혼을 실패의 길로 이끌 뿐이다. 일부 한국 남성들은 가정 내 가부장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행동 통제를 하기도 한다. 폭력 빈도가 높을수록 이혼의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폭력은 이혼의사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은 생활 속에서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지만, 이러한 갈등이 생활 속에서 지속할 때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고려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자녀 양육문제는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에서 더욱 중요시되기 때문에 자녀 양육문제는 가정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영향 요인은 부모의 봉양 문제이다. 여성결혼이민자로 한국에 와서 살다가 중국에서 살게 된 부모의 양육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특히 부모의 건강이 나빠지면 부모의 양육문제는 부부간에 불가피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사회관계 요인에는 문화적 차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험이 있다. 한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응의 어려움이다. 또 생활 속 차별과 편견은 언어 소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모와 식습관 등으로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때도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넷째, 환경적 요인은 체류자격 연장 및 국적취득, 한국법에 대한 인식 및 서비스 이용 경험, 직장 내 문제가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신청 조건과 절차에 대한 미숙함, 신청 실패 경험 때문에 한국 단일민족국가에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속한 소수민족 집단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 또는 이혼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및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위기 지원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직장 내 사기를 당했을 때 법적으로 개인소득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과 정력을 많이 소모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와 회사가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술한 여성결혼이민자 이혼위기 영향 요인을 기반으로 그들의 결혼위기 해소와 다문화가족 해제를 예방하고, 아울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 홍보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를 통해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심층면접 참여자 중 가족센터를 알고 있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하고, 가족센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7명이다. 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내용도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이 방송 등을 통한 홍보 범위를 다시 확대했지만,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지원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조기에 알리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혼인신고 단계까지 정책 홍보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혼인신고서를 발급받는 즉시 지원정책 내용을 간략히 안내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회원가입을 돕는다. 센터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책 홍보 내용을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수 있다. 홍보 내용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선택할 수 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책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중앙정부 산하 정책 시행기관의 자금과 인력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서 위임한 지원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수요를 제때 해결하기 어렵고, 여성 결혼이민자가 겪는 어려움에 따라 차별화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업무 처리의 비효율성과 능력의 한계성이 드러났다. 인력 부족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지원 자금의 부족이다. 이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욕구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충족시키고자 하는 문제는 집행과정에서 큰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셋째, 한국인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부부관계를 돈독히 하고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족 지식을 학습시켜야 하며, 생활양식의 차이와 문화적 차이에 따른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도 여성결혼이민자 국가의 문화를 배워야 한다.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부부갈등, 가정폭력 등이 꼽혔으며 다문화가족일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 의사가 컸다. 여러 다문화가족을 조직하여 함께 교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간 교류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부부와 한국 가족 부부간의 문화 학습과 이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폭력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 활동도 필요하다. 교육의 대상을 부부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시부모나 형제자매와 함께 가정폭력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한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중 결혼의 안정성을 위해 중국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큰 노력을 기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 배우자는 중국의 문화이해와 학습에서 많은 시도를 하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한국 배우자를 대상으로 중국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체류자격 연장 및 국적취득 요건 완화해야 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국적을 신청할 때 복잡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할 뿐 아니라 심사기간도 길고 성공할 확률도 낮다. 또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는 중국 조선족 여성 결혼이민자와 다르다. 중국 조선족 여성은 결혼이민자 신분이 없어도

해외동포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살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한족 여성 이민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혼인 관계를 마친 뒤 자녀 양육권을 얻지 못하면 한국에서 생활하기 어렵게 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자격 연장 및 국적취득 요건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서울시 거주 이혼위기에 처한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그들의 이혼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서울시 거주 중국 한족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기에 전국 결혼이민자 이혼위기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향후 결혼이민자의 이혼위기 영향요인을 더욱 다양한 검토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 연령, 직업, 가계소득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차원에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혼위기와 관련된 영향 요인뿐 아니라, 결혼 초기 사회적응 단계, 이혼 후 생활 적응과정도 해당 연구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다문화가족지원법」, (20200519,17281,20200519), 제1조, 제3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2023.11.28.)

곽배희. (2001).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및 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국내박사학위논문, p.1.

김두섭, 이명진. (2007). "국제결혼 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 안정  
성". 한국인구학, 30(3), pp.33-56.

김복태, 최천근. (2020). "한부모 여성결혼이민자의 빈곤 실태 및 결정요인".  
현대사회와 행정, 30 (3), pp.85-107.

김영혜. (2017). "다문화가족의 부부갈등과 이혼에 관한 연구". 경기도: 경기  
도가족여성연구원, p.21.

김을지. (2021).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글로벌통합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김혜순. (2014). 결혼이민여성의 이혼과 '다문화정책'. 한국사회학, 48(1),  
pp.299-344.

김희주. (2018). "한부모 결혼이민자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질적연  
구". 가족과 문화, 30(2), pp.129-170.

다누리 콜센터. 상담실, 다누리 콜센터. (2023). "서비스 내용".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page/contents.do>

(검색일자:2023.11.28.)

다누리 콜센터. 홈페이지. (2023).

<https://www.liveinkorea.kr/portal/KOR/main/main.do>

(검색일자:2023.11.28.)

- 류향하, 박낙중. (2018). 『포스트차이나 베트남』, 서울: 도서출판 참.
- 박순희. (1974). "이혼위기개입을 위한 불진현상연구-가정법률상담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37-38.
- 박신규, 이성희. (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해체과정 분석 및 지원방안 - 전북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9(2), pp.112-137.
- 박재규. (2011). "국제결혼 여성이민자의 가족해체 원인 및 특성 분석: 경기지역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3), pp.104-139.
- 박진근. (2010).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해체(이혼)원인과 친권·양육권의 결정." 법과 정책연구 10.3, pp.1117-1142.
- 법무부 이민정보과, (2022), 「2022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p.14-56.
-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2), 「2022년 혼인·이혼 통계」, pp.2-29.
-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여성 결혼이민자 생활 실태조사 결과 및 보건복지부 대책 방안". 보건복지부연구보고서, pp.1-350.
- 설동훈, 이계승. (2011).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이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지역사회학, 13(1), pp.117-147.
- 성정현, 여지영, 우국희, 최승희. (2009). 『가족복지학』. 서울: 양서원.
- 송지프, (2009),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p.10.
- 신영진, 이광석. (2019). 여성결혼이민자지원정책의 현황진단 및 개선방안. 한국범죄정보연구, 5(2), pp.63-84.
- 양소남. (2011).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생활 양립을 위한 전략",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9(1), pp.103-126.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3). "한국생활안내".

<https://krguide.kr/KOR/main.do> (검색일자: 2023.11.20.)

- 용희 역. (2000). 질적사례연구(Robert E. Stake 저), 창지사.
- 우영희, 하규수. (201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2, pp.8535-8549.
- 윤택림. (2013).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pp.80-81.
- 이정희.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위기에 대한 사례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pp.41-53.
- 이진석. (2018). 해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이혼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3), pp.771-784.
- 이해경. (2015). "결혼이주여성의 이혼 후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7, pp.29-54.
- 전경근, (2015). 「다문화가족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pp.293-314. 『저스티스』 / 제146-2호, 한국법학원, p. 297.
- 정선희. (201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 후 삶의 변화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p.1.
- 정현미. (2010). 결혼이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1(1), pp.71-102.
- 조석주, 이상묵. (2008).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08(0), pp.1-194.
- 조세은, 김혜미. (2022).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 후 한국 생활에 대한 경험 연구". 한국이민정책학보, 5(1), pp.85-107.
- 주미대. (1981). "裁判上 離婚原因에 關한 研究." 국내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p.1.
- 주혜주. (2005). "이혼 여성의 이혼 결정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0-14.

진세환. (2016).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p.100-103.

진위렌. (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변용 스트레스와 이혼위기에 관한 연구." 朝鮮大學校 국내박사학위논문, pp.43-46.

쯔영티꽈(TRUONG THI THOA). (202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이혼 후 삶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p.1.

## 2. 국외문헌

Ponzetti, J. J. Jr., Zvonkovic, A. M., Cate, R. M. & Huston, T. L. Author. (1992). Reasons for Divorce: A Comparison Between Former Partner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17(3/4): 186-187.

Maykut, P., and Morehouse, R. (1994). *Beginning Qualitative Research*. Palmer Press.

Jennifer M. Qualitative Researcrching. (1994), "Beginning Qualitative Research". Palmer Press(김두섭 역, 1999), 서울: 나남출판

Guba, E. G. (1981). "Criteria for assessing the trustworthiness of naturalistic inquiries".

全信子.中韩国际婚姻中的文化因素[J].当代亚太,2006(03), pp.58-63.

段晓红.中韩国际婚姻的跨国家庭纽带研究——以汉族婚姻移民女性为中心[J].华侨华人历史研究,2020(2), pp.24-32.

肖丽艳.中韩跨国婚姻增加的原因研究[J].齐齐哈尔师范高等专科学校学报,2010(04), pp.75-76.

## ABSTRACT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Divorce Trend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Focused on Chinese female marriage immigrants

Dong, Chuan-Yu

Major i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Cooperation

Dept.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Cooper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As globalization is promoted, more and more foreigners are visiting Korea to study, find employment, and get married. Since the 1990s, multicultural families have been increasing due to gender inequality in Korean society, a decrease in fertility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Among the multicultural families consisting of foreign women and Korean men in Korea, pluralistic families consisting of Chinese Han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Korean male spouses occupy a large proportion. Various factors such as marital conflict, domestic violence, economic conflict, emotional problems, personal attacks, and restrictions on freedom can lead to divorce of couples, deepening the divorce crisi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esent measures to prevent family dissolution at the stage of marriage problems by selecting Chinese Han marriag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 men as subjects and analyzing in-depth interviews in detail the factors that cause divorce in international marriage.

Looking at the analysis results, it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ersonal factors consisted of economic difficulties, differences in age, occupation, lifestyle, religious beliefs, and communication ability. Family relations factors include domestic violence,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child rearing, and parental support. Social relations factors include cultural differences,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nd environmental factors include extension of status of residence and acquisition of nationality, awareness of Korean law and experience of using services, and problems in the workplace. In order to identify such influencing factors and prevent the dissolution of the marriage crisi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the dissolu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problems of the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are combined and propos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expand and strengthen the promotion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t is possible to consider expanding policy promotion to the marriage registration stage. As soon as female marriage immigrants receive a marriage registration form, they briefly guide the contents of the support policy and help them sign up for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he center can send policy promotion contents to female marriage immigrants by mail, e-mail, or text message. Promotional contents can also be selected in various languages such as Korean, English, Chinese, Vietnamese, and Japanese, so female marriage immigrants can easily understand the policy cont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funding and manpower support of policy implementation agencies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The support policy is implemented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One of the important causes of the shortage of manpower in local governments is the lack of support funds. As a result, the problem of satisfying the need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faces great limitations in the execution process.

Third, it is necessary to learn family knowledge in order to strengthen marital relationships and prevent domestic violence. In addition to exchanges between multicultural families, cultural learning and understanding programs between multicultural families and Korean families should be conducted. Regular counseling and educational activities on the violence of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also required. The scope of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so that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ivities can be conducted not only with couples but also with parents-in-law or siblings living together.

Fourth,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status of residence and ease the requirements for acquiring nationality. Female marriage immigrants not only have to submit complex application documents when applying for Korean nationality, but also have a long screening period, but the probability of success is low. Chinese Han female immigrants become difficult to live in Korea if they do not obtain child custody after completing their marriage relationship without acquiring Korean nationality. It was found that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tend the status of residence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and ease the requirements for acquiring nationality.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Chinese Han female

marriage immigrants living in Seoul who are on the verge of divorce, and examined in detail the factors affecting their divorce crisis. There are limitations in dealing with the divorce crisis of marriage immigrants nationwide because the survey was conducted focusing on Chinese marriage immigrants living in Seoul. In order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ivorce crisis of marriage immigrants in more multi-layered ways in the future, a full-scale investigation should be conducted at the national level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such as residence period, age, occupation, and household income. In additi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ivorce crisis, as well as the initial social adaptation stage of marriage and the process of adapting to life after divorce, should be included in the study.

【Keywords】 Female Marriage Immigrant, Chinese Han Women, Divorce Crisis, Multicultural Family